

# 치솟는 금리 ... 이를 어쩌나?

## 주택대출 고정금리 연 9.1% 돌파 ... 서민가계 '이자폭탄'

신한 9.13%·하나 9.06% 등 6개월래 최고

1억 대출자 연간 이자비용 140만원 더 내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이달 들어 연 9.0%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 주 9.1%까지 넘어가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주택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도 5개월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초 신한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주 초보다 연 0.07%포인트 상

승한 연 7.73~9.13%로 최고 금리가 9.1%를 넘어섰다. 지난 1월14일 이후 6개월 여만에 최고 수준이다. 하나은행도 8.36~9.06%로 0.10%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고 금리가 9%대를 돌파했다.

이번주 SC제일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최저 연 8.26%로 지난주에 비해 0.13%포인트 상승했다. 5월19일 이후 1.16%포인트 급등하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최저금리가 8.2%를 넘어섰다. 우리은행은 7.76~8.86%로 0.

21%포인트 상승했으며 외환은행은 0.10%포인트 오른 7.81~8.51%를 기록하면서 5월6일에 비해 최고금리가 1.39%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이 아무런 우대금리 혜택없이 두달 전 외환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당시 대출이자만 연간 712만원 정도였지만 이번주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이자가 851만원으로 139만원 불어나게 된다.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신한은행에서 9.13%로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이자는 913만원으로 9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의 이번주 초 주택대출 변동금리는 6.76~7.46%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4일 이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외환은행은 5.91~7.19%로 0.07%포인트 올랐으며 국민은행과 우리, 신한은행도 일제히 0.06%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11일 현재 5.46%로 지난 3일 이후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제 대출가입 등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깡통계좌' 속출 개미들 '속탄다'

#### 등락장서 반대매매 손실 더 키워

코스피가 두달 새 3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약세장으로 투자손실이 커진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부족과 반대매매라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보유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주가 급락으로 담보부족에 직면하는 일이 줄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지난달까지 '깡통계좌(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포함한 담보부족계좌(담보유지비율이 130% 이하인 계좌)가 일평균 100여개씩 발생했으나 이달 들어 코스피 1,600선이 무너지자 그 수가 하루 최고 900여개까지 늘어나 투자자들이 울상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400여개였던 담보부족계좌가 이달 10일 현재 1천200개로 급증했다. 경쟁사인 D사도 하루 100여개씩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하루 500여개로 늘었다.

문제는 담보부족 사태에 직면한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에 추가로 돈을 집어넣어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일어난다는 점. 증권사가 담보부족분 만큼 강제로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는 담보부족 계좌가 발생하면 해당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달 들어서는 그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대매매를 당해 주식을 팔아치운 직후 증시가 급등하면 해당 투자자는 투자 손실만 키운 꼴이 되고 말아 더 낙담하게 된다.

실제로 코스피는 9일까지 급락하며 10일에는 오전 한때 장중 1,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오후부터 반등해 11일에는 30포인트 급등했다. 9일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는 바닥권에서 주식을 팔았으니 속이 타릴 노릇인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세가 불안정할 때는 자신의 여유자금만 갖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국민 절반이상 "물가안정 시급"

### 전경련, 남녀 800명 조사

#### 96% "경제상황 최악"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 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 ±3.5%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7%가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가운데 '매우 좋지 않다'는 응답은 48.1%, '안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47.6%였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3.5%에 그쳤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악화될 것'(49.9%)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34.6%)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세대별로 30대와 40대, 직업별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4%가 물가안정을 꼽았고, 환율·금리 등 경제변수 안정화(15.2%), 일자리 창출(14.4%),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8.2%), 기업투자 촉진(3.7%) 등이 뒤를 이었다.



### 한우 불고기 정말 맛있죠

미군산 쇠고기의 시중유통이 본격화된 가운데 12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우시식 행사에서 시민들이 한우 불고기를 맛보고 있다.

## 금융업 임금격차 심각

### 女 평균 연봉, 男 절반 수준

■ 2007회계연도 금융업종 임직원 연봉 현황

구분	남	여	전체	여성/남성	동기(이)
증권	99	42	77	44%	521
은행	75	42	62	56%	638
보험	60	35	50	58%	605
전체	84	40	67	50%	568

■ 남녀 격차 상위 10개

순위	종목명	남	여	전체	여성/남성
1	키움증권	123	26	75	21%
2	신용증권	130	37	104	28%
3	유진투자증권	105	33	81	31%
4	동부증권	109	35	81	32%
5	신영증권	130	45	97	34%
6	메리츠증권	135	49	104	36%
7	미래에셋증권	100	38	67	38%
8	유화증권	41	16	35	39%
9	중앙증권	77	32	56	42%
10	SK증권	93	39	74	42%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종의 여자 연봉이 남자의 절반에 그치는 등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증권·보험 등 3대 금융업종 내 44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여자 연봉은 평균 4천만원으로, 남자의 8천400만원의 50%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여자임금은 남자의 61%에 불과했는데 금융업종은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더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셈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우가 열악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작년 최대 호황기를 맞았던 증권업종의 여자 연봉은 남자의 44%에 머물러 은행 56%, 보험 5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심했다.

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 23개 증권사 직원의 평균 연봉은 남자 9천900만원, 여자 4천200만원, 전체 평균은 7천700만원이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남자 7천500만원, 여자 4천200만원, 전체 평균은 6천200만원을 기록했다.

증권업종은 조사대상 23개 업체 중 14개사의 남자 연봉이 1억원을 넘었다. 또 증권은 금융업종 전체 남자 연봉순위에서 은행·보험을 제치고 1위부터 17위까지 상위권을 휩쓸었다.

메리츠증권은 남자 연봉이 1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용증권, 신영증권 1억3천만원, 삼성증권 1억2천500만원, 키움증권 1억2천300만원, 한국투자증권 1억2천100만원, 코토브신상증권 1억1천900만원, 현대증권 1억1천300만원, 한양증권 1억1천만원, 동부증권 1억900만원, 유진투자증권 1억500만원, 대우증권 1억200만원, 우리투자증권 1억100만원, 미래에셋증권 1억원 등이었다.

## 차상위계층도 주택 특별공급

### 주택법 개정 추진 ...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을 국가유공자, 칠거민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상위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으로는 포함되지만 일반 주택공급때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없다.

1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소득 10분위 분위때 1.5분위 정도에 해당해 소득수준이 낮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 소득 1~4분위까지 주어지고 있어 차상위계층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배려를 받고 받고 있지만 일반 주택과 관련해서는 더 상위계층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 일자리 크게 줄었다

### 1년 미만 임시·일용직 13만명 감소

#### 상용직은 44만명 늘어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의지저지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 취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월 평균 20만명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해 월평균 증가수 28만2천명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중상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가 추이를 보면 임금 근로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30만8천명 늘어났지만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10만8천명 감소했다. 이는 내수경기 둔화 등으로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비임금 상용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월평균 44만5천명 증가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은 13만7천명 줄었다.

지난해 임금 근로자는 42만명 증가했지만 비임금 근로자는 13만7천명 감소했으며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은 41만6천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4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일자리 창출이 속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양극화 현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신규 고용을 자제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부터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영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모야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로도복권 (제29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9 17 21 29 33	24	6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656,764,4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8,893,543	21
3 5개 숫자 일치	1,435,672	1,154
4 4개 숫자 일치	54,268	61,059
5 3개 숫자 일치	5,000	926,442

### 팝콘복권 (제11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432592
2	1억	3조 999880
3	1천만	5조 387952
4	1백만	각조 35754
5	50만	각조 2216
		각조 89
6	2천	각조 98
		각조 94
		각조 7
7	1천	각조 4
		각조 6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G이노텍	부품 개발구매 업무지원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4	062-950-0458
한국공업엔지니어링	검사원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4	062-369-0790
퍼머스에이치알	[주5일]광주역앞/우산동 SK텔레콤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7/15	062-383-1756
해원에스티	영업/구매/개발/디자인/경영기획/관리/인사/총무	대학/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958-7033
카타임프라자	이동통신 기기판매 및 CS업무, 아웃바운딩TM, 회계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384-3010
형우스틸	사무관리 및 경리업무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5	062-434-5084
이엘리안웨딩	메이크업, 웨딩상담 경력 및 신입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10-2663-4444
HRN	[SK텔레콤]기초설치 보조 감독관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7	062-529-2671
장원교육문화	[광주/전남]교육직 관리자 및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17	051-465-6664
코마테크	공정자동화 기술지원팀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7	062-956-6036
KIDS LAB	조직적인 일러스터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8	062-224-0579
에네스컨설	조경기술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19	062-572-5500
뉴모텍	개발연구원모집(기계설계,전자회로2개부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9	062-601-081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불법광고 대부업체 186곳 고발

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가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186개 대부업체를 관계기관에 고발, 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벼룩시장과 교차로, 가로수 등 3대 생활정보지의 대부업광고를 모니터링해 287개 위반업체를 적발했고 이중 101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했으며, 시정권고 거부한 186개 업체는 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 고발, 통고했다.

전체 위반내용(287건)을 유형별로 보면 대부이자율 미표기(95건), 영업장주소 미표기(94건), 등록번호에 지자체 명칭 미표기(44건), 이자 이외 추가비용 미표기(25건), 상호 및 명칭 미표기(16건), 등록번호 미표기(10건) 순으로 많았다.